

주요개념 : 질적 연구 방법론,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문화 기술 방법 (Ethnography)

질적 연구 방법론과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

유 은 광*

I. 서 론

간호과학은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포함하는 간호 지식체의 한 영역으로 관심 현상이 살아있고, 감각적이며, 인지적인 인간인 인문과학이며, 동시에 실제적이고 잠정적인 건강문제를 갖고있는 인간을 위해 치료적 행동을 취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임상과학 (clinical science)이다 (Donaldson & Crowley, 1978 ; Swanson-Kauffman, 1986 ; Leininger, 1985). 간호과학은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갖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간 반응의 생태학 (ecology)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인간의 반응은 과학적 탐구의 일 방향적인 연구체계가 아닌 다각도의 연구체계로 연구하므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간호연구의 목적은 실무와 그 이상의 다른 연구를 이끄는 이론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 검증하므로써 간호과학의 발전 (evolution)을 가져와 간호 전문직의 기초를 향상 시키고, 간호의 지식체를 발달 시키기 위함이다. 간호현상은 인간을 포함하는데 인간은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측정 가능하고 환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간호학문은 지식탐구의 양적이고 실증주의적 관점에 의해 크게 영향받아 왔으나 이러한 측면으로만 연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에 간호학이나 다른 학문에서도 점점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Cull-Billy &

Pepin, 1987; Duffy, 1985, p. 87, 1987; Lincoln & Guba, 1985). 이에, 양적인 실증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질적인 자연주의적 관점을 약술하고 일상적인 간호 현장에서 간호현상 연구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방법론적 관점 (Paradigm) : 실증주의적 양적 방법론과 자연주의적 질적 방법론

양적인 연구 방법론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이 과학철학의 20C 초의 비엔나 학파가 주창한 실증주의 또는 논리적 경험주의 (positivism or logical empiricism) 관점에 뿌리를 두고, 형의의 소위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며 연구체계가 가설 연역적 (hypothetico-deductive) 이라 한다면, 질적인 연구방법론은 Kuhn이 언급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후기 실증주의 (post-positivism) 또는 자연주의 (naturalism) 적 관점에 뿌리를 둔 현존하는 인간의 경험 세계를 중시하는 자연적이고 귀납적인 연구체계를 갖는 방법론이라 하겠다.

1) 실증주의적 양적 방법론

실증주의적 양적 방법론의 공리는 실체 (reality)의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특성은 단순하며,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나뉘어 질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서로 독립적이며 분리될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반화가 가능하고, 원인 결과적 관계가 있으며, 연구는 탈 가치적이며 (value-free), 의미(meanings)는 사실 (facts)과 분리되고, 경험은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으며, 이론적 설명과는 독립적으로 언어될 수 있고,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있으며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설 연역적 연구 문제가 인공적인 틀로부터 유도되는 것으로, 이론이나 모델로부터 시작하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세우기 위해 이론을 사용하며, 그 문제를 구체적인 변수 즉 개념이자 영역을 나타내는 변수로 전환시키고, 그 변수를 조작화한다. 또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면밀한 기법을 도입하여 가설 검정을 통하여 변수간의 원인적, 또는 비원인적 관계를 발견하며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 시작시 사용된 그 이론과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Blumer, 1969, p. 45; Atwood, 1984; Lincoln & Guba, 1985). 즉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사실을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발견하며,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고, 연구의 맥락 (context) 과는 상관 없이 그 현상에 공통적인 “일반적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따라 연구설계가 통제되고 조작되는 연역적 과정을 주로 따르고, 주요 연구방법으로 실험연구나 유사실험 연구가 사용되며, 맥락을 배제한 가정 (context stripping assumption)을 갖고, 분석방법이 수량화되고 통계과정을 이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약점은 실증주의적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주요 요소인 주관적인 의미, 즉 상호과학의 인문과학 측면의 인간이해의 중요 요소가 희생된다. 신뢰도는 증가 하겠으나 타당도는 떨어진다 (Duffy, 1985, 1986; Sandelowski, 1986). Lincoln 과 Guba (1985)는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접근은 다음의 두 측면 즉 과학적 이론의 기원을 다루는 “발견의 맥락 (context of discovery)” 과 이론 검증을 다루는 “정당화의 맥락 (context of justification)”을 철저히 혼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자연주의적 질적 방법론

질적인 연구 방법론은 연구 문제들(questions)이 자연으로 직접 들어가 자연 그 자체가 대답을 하도록 하게 하므로써 가장 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자연주의적 관점에는 두개의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 첫째는 연구자가 연구 환경을 조작하려 하지않는 것이고, 둘째는 결

과에 선입견 (priori)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점의 가정은, 첫째로 인간은 어떤 사물에 대해 행동할 때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의미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둘째로 의미란 사람들 상호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그들의 경험에 의해 창조된다고 보고, 셋째로 인간은 그들의 사회 세계 (social world)를 창조하고, 이 세계는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 넷째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진행 과정은 공유하는 의미와 교섭 (negotiation)에 달려있다고 본다. 즉, 자연주의의 접근은 행동하는 주체의 측면으로부터 나오는 경험 세계에 초점을 두며, 연구되어지는 현상의 전체를 해석하고 (Blumer, 1969, p. 2-4; Beloniell, 1984; Chenitz & Swanson, 1986; Hammersley & Atkinson, 1983, 1989), 인간 및 인간과 주변과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체계적인 연구형태 (Beloniell, 1984)로써 경험적 확인 (empirical validation)은 연구방법의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 사회 세계를 조사해 봄으로써 성취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험적 확인을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경험 세계안으로 들어가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세계를 알고, 질문, 문제, 자료 및 개념을 그 경험 세계로부터 얻어서, 그 경험 세계에 대해 해석하기를 요한다.

자연주의적 질적연구 방법론의 공리는 실체가 전체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찰자와 피 관찰자는 분리될 수 없고, 일반화는 시간과 맥락과 연결된 진행중인 가설 (working hypotheses : 문자적 진술) 내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실체 (entity)는 상호 동시적으로 형성되므로, 결과로부터 원인을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며, 어떤 연구도 가치와 묶여 있고 (value-bound), 의미도 사실과 분리되지 못하며, 지식 획득에 귀납적이고 전체적인 (holistic) 과정을 따르고, 자연적인 맥락 내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므로써 사실로부터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Lincoln 과 Guba (1985, pp. 39-44)는 자연주의적 연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실체가 그 맥락과 독립해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연적인 연구 환경안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가 되며, 현상은 연구자 자신의 입장에 의해 기술되고, 질적연구 들은 보다 복합적인 실체들을 다루는 데 적절하며 서로 상호간 영향을 주는 데에 그리고 가치 형태에 보다 민감하다. 표본추출은 보다 주류에서 벗어난 대상을 찾으므로 이미 밝혀진 자료의 범위와 영역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 또는 이론적 (theoretical) 표본추출을 하며 귀납적 형태

를 따른다. 연구 설계는 이미 설계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응급적 (emergent)이며 결과는 구체적인 working hypotheses가 그 맥락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가장 잘 입증되고 확인되므로 인적 자원과 교섭한다. 결과의 폭넓은 적용은 그 결과가, 조사자와 그 맥락내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피연구자와의 특별한 상호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시적이다.

요약하면, 자연주의 패러다임은 과학 세계의 주류인 양적인 실증주의의 관점의 가정들과 대조를 이루는 후기 실증주의 관점으로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실재하는 경험 세계로 직접 들어가서, 면밀한 검토하기를 요구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post-positivistic, ethnographic, phenomenological, subjective, case study, qualitative, hermeneutic, and humanistic views" 같은 별명들 내에 포함되어 있다 (Lincoln & Guba, 1985, p. 7). 다시말해 질적연구는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grounded theory, phenomenology, ethnography, feminist methods, 역사적, 철학적 연구등의 다양한 해석적 기법들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용어 (umbrella term) 이다 (Sandelowski, 1986, p. 28 ; Van Maanen, 1983, p. 19). 물론 각 방법 나름대로 독특한 면을 갖고 있는 데, ground theory의 목적은 분석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현상의 자연적인 환경내의 사실들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 하여 사회과정을 개념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며 이의 이론적 기초는 실용주의와 상징적 상호관계 이론에 두고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을 강조하며 가능한 성실하게 살아있는 생생한 존재론적 (existential)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술 (description)" 하도록 하며 (Husserl 학파) 또한 그 개인의 관점에서 매일의 생생한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해석 (interpretation)" 하는 것 (Heidegger 학파 또는 Hermeneutic)을 강조한다. Husserl 학파와 Heidegger 학파간 차이점은 "bracketing"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데, bracketing이란 연구자가 빈 마음의 상태 또는 "Priori" 없이 연구를 시작하는, 즉 어떤 가정, 이론, 원인 결과관계, 역사적-문화적 맥락 조차도 전혀 없이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Husserl 학파가 "bracketing"을 강조한 반면, Heidegger 학파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bracketing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인간을 처해있는 상황과 의미있는 맥락내에서 스스로 해석하는 존재 (self-interpreting being)로 본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Knaak, 1984; Omery, 1983; Benner, 1984,

1985; Van Manen, 1990; Benner & Wrubel, 1990). Feminist 접근은 여성의 목소리에 청중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언어와 개념으로 여성의 경험에 동참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Hartssock, 1981; Smith, 1987; Devault, 1990; Gilligan, 1982; Oakley, 1981). 이러한 접근은 학문이 남성 편견과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지하면서 남성우위의 세계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행위 (action)들을 강조한다. 다른 질적 연구들과의 큰 차이점은 여성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연구시에 일반적으로 보다 동정적이고 감정 이입적이며 의식을 깨우는 면담 기법과 친밀관계 (rapport)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 연구 방법은 구전식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입증의 자료로써 사람보다는 오히려 기록된 글 또는 남겨놓은 인공물을 연구한다. 철학적 방법은 의미를 입증하는 데에 어떤 논리 (logic) 와 입증의 규칙 (rule)을 추구한다. 문화기술 방법은 한 사회의 문화나 삶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과학적인 기술과 분석을 목적으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흥미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 문제를 가장 잘 답해 줄 수 있는 연구방법을 주의깊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Harre의 실증주의적 양적 방법론과 자연주의적 질적 방법론 간의 차이점을 통해 요약하면 실증주의적 관점은 나타나는 표면적 사건에 관심이 있고, 주요목적이 예측이며, 결정적이며, 의미를 조작적으로 설정하는 반면, 자연주의적 관점은 표면적이 아닌 보다 심연에 관심이 있고, 주요목적이 이해와 해석이고, 개연적이고 추리적이며, 의미를 추론적 (inferentially)으로 설정한다. 자연주의적 관점의 주요 가치는 경험적 세계 내에 근거를 둔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취약점은 실증주의적 평가기준으로 볼 때 신뢰도, 타당도, 객관성을 성취하기가 곤란하다는 비판이다.

3) 양적-질적 방법론에서의 이슈: 용어와 방법론의 병용

아직도 문헌이나 학자 간에 질적 접근이라는 용어 사용에 혼돈이 있는데 어떤 이는 실증주의적 가설 연역적 연구 설계 하에서 숫자적 자료가 아닌 문자적 자료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다른 이는 해석적 기법들을 총 망라하는 자연주의적 접근 방법을 지칭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질적방법론은 자연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질적연구 방법 (methods)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세계내 근거를 이루는 이론들을

발달시킬 목적을 갖는 과학적 탐구의 귀납적 형태를 의미한다 하겠다 (Strauss, 1993, 개인면담). 물론 질적인 자료의 질적 분석 결과를 숫자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quantification” 과 양적 방법론을 혼용해서는 안되겠다. 숫자화는 문화 기술방법의 etic 관점의 연구들에서 종종 보여지나 Strauss (1992, 개인면담)는 질적 연구 관점에서 숫자화는 큰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패러다임 이슈이다. 가설 연역적 실증주의적 연구관점이나 자연주의적 귀납적 연구관점이나 이다.

간호현상의 특성으로 보아 양적 연구만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부적절하다 (Leininger, 1985; Blumer, 1969). 질적, 양적 방법론에 대한 두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질적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철학적 바탕, 궁극적 목표, 현실을 보는 관점등이 명백히 구별될 수 없다는 의견 (Reichardt & Cook, 1979)과 다른 하나는 양적 방법론이 실증주의 철학에 기초하며 연구의 목적이 예측 (prediction)인 반면, 질적연구 방법론은 후기 실증주의 (post-positivism)에 기초하며, 그 목적이 이해와 해석인 분명히 다른,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Harre, 1981; Van Maanen, 1983).

이러한 견해들은 연구상황에 구체적으로 반영 되는데, 간호문헌에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 질적 접근을 검증되어야 할 지식의 발견을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질적연구 방법론의 목적과 원리에 따라 순수히 질적 연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전자의 경향을 따라 가설 연역적 연구설계의 양적 접근의 부수적인 것으로, 예로 도구개발을 위한 전단계로써, 보다 긴 양적연구의 소 부분으로 질적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가 있다. 이는 소위 두 방법론의 병용 (triangulation)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지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처음에 방법론의 병용에서 시작한 이 개념은 자료 수집 방법, 연구가, 이론들의 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달되었다 (Denzin, 1978, p. 295). Field 와 Morse (1985)는 두 방법론의 병용시 두 방법이 동시에 또는 차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질적연구 방법을 가설이 나타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양적 방법을 통해 가설이 검증되거나 영역의 감정적 측면을 기술하는 데에 질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양적 방법을 통해서 다른 변수들을 측정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두 방법론은 철학적 관점과 기초하는 가정이 분명히 다른 패러다임에 출발한 다른 방법론임을 강조

하면서 Philips (1989)는 한 연구에 두 방법론이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를 과학적 연구의 귀납적 양식으로,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에 자연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질적방법을 이용하며, 그 목적이 이해, 해석, 경험 세계내에 근거한 (grounded)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단, triangulation의 원래 목적인 보다 풍부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둘 다 한 연구에 사용할 때는 두 방법론이 기초하는 철학과 가정이 엄연히 다르므로 차례로 (sequentially), 자연주의 패러다임에서 질적 연구를 끝내고 난후, 실증주의 가설연역적 패러다임에서 설계된 양적 연구과정을 밟아 패러다임 간의 혼동이나 가정과 위배되는 잘못된 접근을 가능한 피한다면, 두 방법론의 병용이 추천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4) 질적 연구방법의 평가기준 (Criteria for Rigor)

실증주의적 양적연구에서 사용되는 타당도, 신뢰도 개념하에서 Brink (1989)는 타당도 문제는 연구질문, 연구문제,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신뢰도는 자료 수집 기술과 관련된다고 보아 환경, 정보제공자 개인의 성격,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관계, 기록실수나 사용되는 장비의 고장 같은 기계적인 결함과 관련된다 고 하면서 일상생활 기술 연구가들은 신뢰도 보다는 타당도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Robertson 과 Boyle (1984)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관찰자가 같은 사건을 관찰하거나 또는 같은 자료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석할 수 있다 하였고 (inter-rater reliability), 정보제공자간 신뢰도 (inter-informant reliability)는 구체적인 자료가 도출 되었을 때 다양한 자원에서 자료를 수집하므로써 증가 될 수 있다 하였다. 타당도는 현장에 가능한한 오래 머물고, 폭넓고 집중적인 자료수집, 다양한 표본추출, 자료 수집 방법의 병용, 자료수집 기간동안 계속적인 자료 분석을 하므로써 높일 수 있다 하였다. Fetterman (1989)도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들의 병용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패턴 (pattern)을 찾으라 하였다. Spradley 와 McCurdy (1972)는 문화 기술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자와 좋은 친밀관계를 유지하고, 정보제공자 개인의 의견에 초점을 두는 대신 그가 속해 있는 집단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견해를 강조하며, 여러 다른 방법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어떤 정보에 대해 다른 정보제공자들

과 함께 점검해 볼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LeVine (1970)은 비슷한 연구과제와 연구방법론에서 얻은 기준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하였다.

이러한 타당도 신뢰도 개념 기준에 근거한 의견에 반해, Sandelowski (1986)를 비롯한 질적연구자들 (Burn, 1989; Cull-Wilby & Pepin, 1987; Gortner & Schultz, 1988; Huber, 1973; Lincoln & Guba, 1985; Watson, 1985)은 연구의 평가시 실증주의적 양적 방법론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평가 기준이 자연주의적 질적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였고, Sandelowski (1986)는 자연주의적 연구의 엄정을 기하기 위한 4가지의 요소를 양적 연구의 기준과 비교하며 이들이 평가기준이 되어야함을 주장 하였다. 이 기준들은 진리치 (truth value), 적용성 (applicability), 일관성 (consistency), 중립성 (neutrality)의 네 영역을 보는 데, 진리치를 위해서는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실성 (credibility)을, 적용성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당성 (fittingness)을, 일관성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의 신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청성 (auditability)을, 중립성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증성 (confirmability)을 기준으로 삼았다.

Credibility는 “인간의 경험을 기술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대상자의 경험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술하고 해석하며, 타인이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 (verbatim quotes) 하므로 저들 경험을 표현하고, 다른 연구자나 독자가 저들 경험을 단지 읽으므로써 인지할 수 있도록 경험을 잘 묘사하며, 대상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자로서 자신의 감정, 행동, 경험을 계속적인 “반복적인 자기성찰 과정 (reflexivity)”을 통해 기술하고 해석하면서 연구 상황에 가능한 오래 머물도록 노력한다.

Fittingness는 “연구 결과를 다른 맥락내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Credibility 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의 대표성과 자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코딩 영역을 계속 검토하고, 자료의 출처 (면담 또는 관찰, 등등)와 자료수집 과정을 다양하게 하여 결과의 일관성및 적합성을 탐지하며, 자료로부터 기인한 결론을 반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자료에 대한 기술, 설명, 또는 이론이 전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또는 비 전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며, 대

상자 자신에게 확인과정 (validation process)을 거친다.

Auditability는 “어떤 독자나 연구자도 연구의 전개 과정을 따라갈 수 있고,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부터 끝까지 명백한 결정 과정의 흔적 (decision trail)을 남기도록 노력해야하며, 각 연구 방법의 측면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예로, 무엇이 연구 되었으며, 대상자와 자료가 연구자에게 미친 영향, 자료 수집 기간, 수집 방법, 연구 장소의 성질, 자료의 진가와 적용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등이 포함된다.

Confirmability는 “편견이 없는 중립성”의 표준이다. 이는 대상자의 설명, 관찰 같은 증거, 자료수집에 사용된 방법, 연구의 목적, 사용된 분석 방법에 의존하는데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된 기준들 즉 Credibility, Fittingness, Auditability 모두 확립될 때 Confirmability 가 확립된다.

2.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문화기술방법 또는 민속학적 연구방법 등으로 번역되어온 Ethnography (Ethno : people in everyday life, graphy : narativly analytically descriptive)는 인류학에서 기원, 사회내의 문화, 삶의 방식의 과학적 기술 및 분석에 관심이 있는, 주요 업무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대상자의 관점으로부터 문화적 기술 (cultural description)을 하는 것인데 (Glittenberg, 1981; Parse & Coyne, 1985; Spradley & McCurdy, 1972; Spradley, 1979), 전통적인 ethnography는 멀리 떨어진 또는 외국 문화에서 오랜기간 동안 거하며, 그 집단의 역사, 지역적 위치, 혈족관계, 상징(symbols), 정치, 경제교육 체제, 사회화, 주류문화와 연구집단 문화간의 교류정도 등등을 연구했던 방법으로 연구대상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거시적 (macro) 또는 미시적 (micro) ethnography 로 구분된다.

Hammersley 와 Atkinson (1983)이 ethnography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를 지적 하였는데, ethnography란 문화적 지식을 끌어내는것 (Spradley, 1980),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상세히 연구 하는 것 (Gumperz, 1981), 서술적인 이야기의 한 형태 (Walker, 1981), 연구되는 집단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실체(reality)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 (Emerson, 1

1983), 이론의 발달 (development)과 검증을 위한 개념적 모델을 발견 하는 것 (Denzin, 1978a, 1978b; Glaser & Strauss, 1967) 등 학자간 관점이 다양하나 공통적인 개념은 “문화” 또는 문화내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며, 경험 세계내로 들어가고 참여하는 “현장 연구 기법”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ethnography를 단순한 문화적 기술만이 아닌 성실한 기술과 reflexivity를 통한 해석 과정을 바탕으로 문화적 지식을 산출해 내고,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론 발달을 위한 개념적 모델을 발견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Ethnography의 중심개념은 문화 (culture) 로써, 인간은 문화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데, 문화는 “행동의 패턴” (patterns of behavior) 즉, 습관, 관습, 및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인 기타 표준화된 사회 절차들 (standardized social procedures) 같은 반복되어 발생하는 활동들을 포함하며, “행동을 위한 패턴” (patterns for behavior) 즉 개념적 의도인 공유된 개념과 인간의 삶의 방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의미의 체계를 포함한다 (Goodenough, 1961, p. 521; Keesing, 1976, p. 139). 이상의 정의와 같이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유물론적, 관념론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바가 다른데 관념론적 측면에서는 사회 집단의 행동, 습관, 삶의 방식등의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총합 즉 문화적 “행동”을 강조하며, 관념론적 측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집단을 특징지우는 관념, 신념, 지식 즉 “인지적 지식”을 강조하는데 연구시에 사람들이 자연 환경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양쪽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전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겠다. 또한 ethnography는 과정과 결과물의 두면을 나타내는 모호한 용어인 데, 과정으로서는 문화내 일상생활 양식 또는 특별한 패턴을 관찰하고, 수집하며, 상세히 설명하고, 묘사하며, 분석하는 과정, 즉 의미의 틀을 전하여 주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고, 결과물로서는 대개 특별한 문화 및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한편의 책을 지칭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인류학의 입지와 연구축점의 변화는 멀리 떨어진 외국의 연구대상에서 국내의 여러 문화권 (ethnic groups)으로 또한 문화라는 거시적이고 추상적 개념보다는, 결국 이 문화가 형성화 되어 나타난 어떤 사회 집단의 전체적인 또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삶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의 문화의 이해로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일상생활 기술 연구방법이란 바로 전통적인

문화 기술방법 시각에서 방향전환된 시각을 지칭하는 즉 사회의 계층별, 지역별, 종교별, 직업별, 성별별등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문화, 도시내의 하부문화, 조직, 작은 지역사회, 임상에서 전임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일상생활의 삶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구자는 연구되는 집단과 비슷하거나 다른 배경일 수 있으며, 초점이 개인들에게 맞추어 질 때 사회문화적, 환경적 맥락내의 문화적 주제를 강하게 강조할 수 있다 (Emerson, 1983; Hammersley & Atkinson, 1989; Lipson, 1989). 전통적 ethnography에서와 같이 일상 생활 기술적 면담 (ethnographic interview) 과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같은 현장 연구 기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 도구로 자신의 감각, 사고, 감정에 의존하며 또한 민감하고 지각적인 자료 수집 도구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연구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부터 학습한다. 연구의 성패는 상당히 이러한 관계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에 달려있다. 즉 외국, 원시문화 또는 토착문화가 아닌 동시대의 현대(contemporary)의 사회 문화적 맥락 (context)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전통적인 ethnography와 큰 차이로 하겠다.

1) 인식론 (Epistemology)

인식론, 즉 지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내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며 (Robertson & Boyle, 1984, p. 44) emic, etic 두 관점을 갖는다. Emic 관점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대상자의 목적, 의미, 신념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요하며 이는 행위자와 관찰자 중 “행위자”가 그 자신의 내적 상태를 더 잘 안다는 가정을 전제하여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인지적 상태가 행동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문화에 대한 관념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etic 관점은 행위자의 행동의 의미가 “연구자” 자신의 이론적 영역에 의해 가장 잘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아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인지적 지식 보다는 관찰 될 수 있는 행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문화의 유물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실증주의 철학의 논리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Harris, 1968). 이러한 접근 이외에 집단의 의사결정 또는 개인의 자유의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식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인식론적 두방향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희봉, 1993, 중앙대 학술세미나).

2) 연구대상자의 명명

연구대상자를 전통적으로 정보제공자 (informants)라 칭하며 정보제공자와 더불어 일한다. 연구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제공자가 관찰된 문화적 패턴 내에 그들 고유의 언어로 통찰력을 제공 해주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정보제공자 즉, 주요 정보제공자 (key informant)와 일반 정보제공자 (regular informant)가 있는데, 주요 정보제공자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그 사회 집단의 다른 사람 보다도 잘 알고 조리있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서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자를 의미한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이러한 지칭은 사회과학에서 가설을 검증할 때 사용되는 Subject (대상자)의 개념, 즉 이미 어떤 이론을 전제로 도출된 선제된 개념을 갖고 시작하게 되므로 정보제공자와 함께 일할 때의 순수한 무지의 상태로 시작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고, Respondent (응답자), 즉 연구자의 언어로 형성된 설문지에 단순히 응답하는 자로서의 개념 역시 정보제공자와 함께 일할 때에 연구자의 언어가 아닌 정보제공자의 언어로 그가 속해있는 맥락내에서 산출되는 질문에 응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외에 Actor (행위자)의 개념이 있는데, 즉 자적인 연구현장에서 참여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장연구의 참여관찰과 면담하에 있는 대상자는 행위자 개념을 포함한 정보제공자가 된다.

3) 현장연구 (Field work)

생활 현장내로 들어가는 현장연구로 참여관찰과 면담이 주요 방법이다.

(1)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관찰은 철저하고 면밀한 관찰과 자료의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하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Fetterman, 1989, p. 45) 연구자는 그상황의 일부가 되지만 기술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도록 노력 해야한다 (Spradley, 1979; Sanday, 1983). 이 방법의 성공여부는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친밀한 관계와 상호 신뢰 존경하는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제공자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참여 관찰자의 자아 (self)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즉, 자신이 그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이 연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늘 인식하면

서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도록 노력하되 융화되지않고 냉철한 머리로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말해 연구자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늘 의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면담동안 정보제공자가 보고한 어떤 행동들간의 정보를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행동들을 통해 입증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의 언어적 표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조사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Field & Morse, 1985).

이 방법의 목적은 관찰자가 연구현장에 있으므로 인해 올 수 있는 변화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전형적인 상황을 관찰하고 연구 상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기술 하기 위함이다. 참여관찰자의 역할에 따라 participant-as-observer와 observer-as-participant로 나뉘는데, 전자는 연구자의 역할보다는 그 집단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주요 역할이고 연구자의 역할이 위축되는 반면, 후자는 그 역할이 연구자로서 관찰하고 면담하는 것이 보다 주요한 역할이다. 예를 들면, 전자는 간호사인 연구자가 정보제공자인 환자의 간호행태를 병원과 환자 퇴원 후 집에서 참여관찰 한다고 할 때, 병원에서 간호사의 그날의 업무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게 될 때 주요업무인 간호사의 역할에 비중을 두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이며, 후자는 간호사가 연구자의 입장으로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 제공자에게 건강 전문가로서 그의 요구를 충족 시킬 때이다. 실례를 든다면, 연구자가 산후조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연구문제를 갖고 연구중 면담을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정보를 얻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환자가 처한 자연 현상내로 들어가 그가 하는 행동과 그 상황에서 도출되는 질문을 통해 현장연구를 할 때이다. 가정방문시 환자는 연구자가 간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에게 건강전문가로서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산후조리의 의미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산모와 아기의 신체 사정이라든가 연구문제와 무관한 산모의 일반적인 궁금중에 대한 도움과 산모의 말을 들어주므로써 정서적 편안함을 도모하고 신뢰감 및 친밀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요 역할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면밀한 관찰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내는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 역할이라 하겠다.

관찰은 상황이나 사건의 면밀한 묘사와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 주인데 참여관찰 방법의 서술에 대한 여러 학자들 간의 공통점은 우선적으로는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그 후에 그 사건과 관련된 맥락이나 상황을 서술하고 또한 사건과의 관계성을 서술해 나간다는 것이다. Spradley (1985)는 관찰의 방법으로 광범위한 서술(descriptive)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범위를 좁혀 집중(focused) 관찰을 하게 되고, 연구의 계속되는 과정중 반복되고 의미있는 문제 중심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 선별(selective) 하여 관찰하는 전략을 소개하였다. 즉 처음의 서술적 관찰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그 다음의 관찰해야 할 과제를 이끌고, 계속 문제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초점을 맞추며 그 다음의 관찰 내용의 방향을 이끌게 되며, 사회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는 범위로 공간, 행위자, 행위, 활동, 사건, 시간, 물건(objects), 목표, 느낌 등을 들었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 의미 분석 연구에서 행위자인 산모와 산판자가 산후조리를 위하여 하고 있는 행위, 양자간의 상호관계, 사용하는 물품(예, 쪽집시 사용하는 기구, 내용물 등), 공간적인 것으로 창문과 문의 위치, 크기, 장치, 바람이 통하는지의 여부, 산모가 누워 있는 위치, 아기와의 거리, 산후조리 기간중 관찰되는 사건(예, 첫이레행사, 세이레 행사, 백일 등), 연구시 관찰된 사항들로 부터의 연구자의 솔직한 느낌 등을 들 수 있다. 참여관찰의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난제는 관찰자가 현장에 있으므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뢰 관계와 친밀한 관계 확립(Field & Morse, 1985; Ragucci, 1972)과 관찰이 시작되는 때를 알리지 않고 연구현장에 들어가는 즉석관찰법(spot observation)(Rogoff, 1978)에 의해 감소될 수 있겠다.

(2). 일상생활기술적 면담법(Ethnographic Interview)

주로 비형식적 면담방식을 취하며 연구상황에서 정보제공자가 만들어 내는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며, 정보제공자 관점의 서언적인 의견을 얻기위해 광범위하고 얕은 일반적이고도 인간적인 대화나 상호의 이해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초기 반응에 따라서 보다 깊이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좁혀 초점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해 간다. 고로 이전의 면담에서 획득한 정보가 다음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면담을 진행해 가야 하는지를 결정한다(Brink & Wood, 1988; Field & Morse, 1985; Spradley, 1979). 이러한 면담은 정보제

공자와 함께 새로운 행로를 발견하고 그들의 세계에 대한 귀납적 이해를 강조하는 과정이다. 이 면담의 특징은 질문과 답이 함께 정보 제공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고, 면담자 역할은 수용적이고, 무비판적 그리고 존경의 태도로 면담을 이끌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연구와 무관한 내용(dross-rate)의 양을 최소화 하면서 연구주체에 계속 머물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Field & Morse, 1985, p. 66).

Spradley (1979)는 서술적 질문(descriptive question), 구조적 질문(structural), 대조적 질문(contrast) 유형을 소개하였다. 서술적 질문은 광범위한 질문으로 예를 들면, “여자가 아기를 낳은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해야지요”; “건강한 것이 무엇인데요?” “병 생기지 않고 잘 회복 되는 것이지요.”: “병이라뇨?”, “아 있잖아요, 애낳고 생기는 병이요. 아픈병. 산후조리 잘 못해서 오는 것.”; “산후조리가 뭔데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여자가.”; “네 조금 알기는 해도.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산후조리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식으로 면담 시작시 도입되는 질문이고, 정보제공자의 답에 근거하여 말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구자의 연구문제 방향으로 면담을 이끌어가서 결국은 확실하게 정보제공자의 내부에 있는 깊이있는 의견을 듣게 된다. 그 후 첫 면담 내용 분석에 근거하여 나타난 영역(domains)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고 정보제공자가 어떻게 그들의 지식을 조직하는가를 알게하는 구조적 질문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 전기 장판을 깔고 계시네요. 와, 뜨겁다. 이거 왜 하세요?. 방이 더운것 같은데. 문도 꼭 닫으셨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 봐요.” 식으로 참여관찰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확인도하고 또한 관찰로 발견될 수 없었던 정보를 발견하게 된다. 대조적 질문은 영역내의 미의 범위를 발견하게되는 질문으로 예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과 차가운것을 피하는 방법이 같은 것입니까?” “다르다면 어떤점이 다릅니까?” 식의 질문유형이다.

즉 면담은 연구하에 있는 정보제공자가 처한 맥락속의 언어 사건이며 주의할 점은 연구자의 연구문제를 향한 기본적인 질문의 틀은 갖고 있으나 질문의 순서나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자의 정해진 방향이나 결론으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랜시간 동안 정보

제공자가 말하도록 한다. 면담도중 정보제공자의 표정, 제스처, 침묵의 기간, 어조, 음성의 강약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술을 유의 관찰하며 자료분석에 자료로 활용한다. 활용할 수 있는 면담기술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속도로 편안하게 정보를 생각해내고 구사하는 것을 연구자가 가로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며, 연구자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청해야하고, 답을 암시하거나 거북한 질문은 피하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식의 대화는 피한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간호제공자로서 가르치거나 일방적인 지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Gorden, 1980; Field & Morse, 1985; Spradley, 1976).

(3). 자료기록 및 보존 (Data recording and Keeping)

연구 자료는 참여관찰의 현장노트 (field notes) 와 면담 기록지가 주요 자료인데, 참여 관찰시 현장의 사진, 비디오, 스케치, 및 지도 (map)와 면담시 녹음테이프, 기타 순서 일람표 (flow chart), 인공물 (artifacts) 등 부 자료도 포함된다. Patton (1990), Schtzman 과 Strauss (1973), Spradley (1979, 1980), Strauss 와 Corbin (1990)의 의견을 참고하여 여러 형태의 현장노트를 소개하면 축약노트 (condensed note), 확장노트 (expanded), 일기 (diaries), 분석 메모 (analytic memo), 코드 노트 (code note) 등이 있다. 축약노트는 면담과 관찰동안 작성되는 것으로 모든내용을 기록할 수 없으므로 주요 단어나 절 또는 주요 요점 목록, 연결되지 않는 문장, 정보제공자 자신의 언어 등을 수록한 축약된 형태의 노트를 의미한다. 이 축약노트는 또한 갑자기 떠오른 좋은생각 (idea or hunches), 통찰력 (insights), 해석, 감정이나 행동의 비언어적 표현 같은 연구자의 마음에 와 닿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이는 다른 형태의 현장노트를 준비할 때, 어떤 맥락과 연결된 설명과 더불어 녹음 테이프를 옮겨 적을 때, 다음의 관찰시 계속되어야 할 질문을 고려하는데 사용 되는 등 여러 방법으로도움이 된다. 확장노트는 축약노트의 축약된 내용을 원래대로 확장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장을 떠난 후 곧 연구자는 현장을 회상하며 상세히 기록하는데 녹음테이프를 완전히 필사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확장노트 중 하나이다 (Spradley, 1979, p. 75). 실제적으로 권할 만한 현장노트는 Schatzman 과 Strauss(1973)가 제시한 ON, MN, TN으로 ON 은 관찰사항의 서술적 정보로 사

실을 기록한 관찰노트 (Observational Note)이고, MN 은 다음 면담이나 관찰시의 가능한 방법, 예를 들면, 연구자 자신에 대한 지시사항, 연구중 자신에 대한 평가, 미래의 질문이나 계획등에 대한 기록인 방법노트 (Methodological Note)이며, TN은 자료 수집과 ON 및 개인별 축약노트로부터의 분석 결과 나타나는 영감, 좋은생각, 통찰력, 판단내용, 해석부분을 기록하는 이론노트(Theoretical Note)인데 이들을 사용하여 작성하면 많은 내용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기는 연구 경험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낌, 그러한 경험에 대한 개인적 의미에 대한 숙고 사항, 발생된 사건에 대해 관찰자에게 뜻 깊은 일, 현장연구시 잘못이나 혼동 되었던 것, 타결해야 할 문제, 타결여부 등 현장연구의 개인적이고 자기반성적 기록으로 이는 도구로서의 인간 연구자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적 편견이나 감정을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석 메모는 각 정보 제공자의 이론 노트들의 합해진 하나의 덩어리이고, 코드노트는 계속되는 분석에 따라 나타나는 범주(categories) 들에 대한 코드 번호를 포함한다. 모든 현장 노트에는 날짜와 정보제공자의 코드번호와 가명의 약자, 면담 일련 번호 및 정보제공자의 간단한 설명, 어떻게 선택 되었는지, 연구현장, 면담과 관찰 내용 등이 요약되어 있는 걸표지를 단다. 이와 더불어 분류카드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저장할 수 있다. Ethnograph이라는 영문판 소프트웨어는 숫자화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4). 자료분석 (Analytic Strategy)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가 문제를 선정하면서 부터 시작되며 결과 보고의 마지막 단어에서 끝난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가능한 분석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분석의 시작이며 이들은 현장노트 기록의 일부가 되고 분석적 메모에서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게 된다. 즉 자료수집과 동시에 일어나는 '진행과정 (ongoing process)'이고 이 과정은 지식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질문하고, 듣고, 탐색하며, 비교하고, 대조하며, 합성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계속되는 '반복적이고도 회귀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질적 연구가 될 수 없고 무의미 할 뿐이다. 질적연구의 분석에서의 난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의미있게 만드는 것, 주요한 패턴을 확인하고 자료가 나타내주는 본질을 논

의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특성은 자료의 내용을 자주 읽고 자료와 친밀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Marshall & Rossman, 1989). 그러다보면 결국 자료의 내용속에 계속 나타나는 단어와 절을 인지하게 되고 이들은 후에 주제 (themes)와 범주 (categories)로 발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추상적 개념으로 발달하게 된다. 처음에 범주는 단지 광범위하고 몇개에 불과하나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상의 범주가 나타나고 또한 주요 범주들은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범주로 나뉘게 된다. 분석방법의 예로, Fetterman (1989)은 패턴분석을, Spradley는 네가지 유형의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Spradley 지침을 소개하면, 첫째는 '영역분석 (domain analysis)'로 이는 문화적 지식의 보다 큰 단위를 찾는 단계로 보다 큰 범주가 분석된다. 둘째는 '분류 (taxonomic) 분석'으로 영역들이 조직된 내적 구조를 찾아내며 대조가 되는 세트를 확인하도록 이끈다. 셋째가 '성분 (componential) 분석'으로 이는 영역내 상징 (용어)들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넷째가 '주제 (theme) 분석'으로 영역간의 관계와 어떻게 그 영역들이 전체로서의 문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자료를 잘 표현해 주고, 어떤 자료가 주어진 연구 목적을 나타내 주느냐를 전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외에 절대적인 규칙 (rule)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존하는 여러 학자의 분석 과정이나 지침 역시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분석 지침을 적용 할 때도 연구자의 판단 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데 (Patton, 1990) 이는 질적탐구는 각 단계 마다 연구자의 능력, 기술, 훈련, 통찰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질적분석은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스타일과 분석적 지력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자료수집 동안 생기는 분석적 통찰력을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질적 연구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교육과 훈련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고 엄정성을 기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모든 형태의 현장노트를 포함하여 혹 사용될 수 있었던 모든 부 자료를 포함한다. 요약하면 분석적 전략은 계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의 진행적인 성질에 따라 융통성이 있다.

Ⅲ. 결 론

건강과 질병 행위는 일상생활 모양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 문화는 건강과 건강행위와 관련된 인간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며 중요한 방향으로 삶의 모양을 이루어 간다. 간호의 대상자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지닌 인간이고 그의 요구 충족을 통한 안녕상태 유지를 위한 일련의 간호행위를 목표로 할 때, 간호할 때의 의사 결정과 간호행위에서 문화의 개념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 되어서는 안되는 연결된 개념이다. 문화는 건강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잠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반응과 이들 반응에 대해 대상자가 취하는 행동들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이들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반응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내에서 비롯된 신념, 가치, 의미가 끼친 영향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지식은 서구의 문화를 배경으로하여 태어났고, 그동안 그대로 다른 문화에 이식되어 적용되어 온바 간호현상이 물리적 현상이 아니고 간호의 주요 핵심 개념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문화마다 독특성을 갖고 차이가 있을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서 부분문화의 개념으로 보아도 학문을 통한 사회화에 의해 서구화된 간호인과 그렇지 않은 대상자 간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상자의 안녕추구를 위한 전문적인 접근에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간호현상의 독특성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더불어 한국적 간호의 본질 파악과 이론정립이 아직은 태동의 단계에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은 다른 문화, 환경 내에 처한 사람들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며 또한 개별화된 간호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간호의 요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간호의 영역 개념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에 대한 대상자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간호 연구의 방향은 실증주의적 양적방법론에 근거한 연구 방법 및 고급 통계 방법 사용의 선호, 이미 연구된 주제나 개념의 가급적인 기피 및 외국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번역 사용 등의 경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각 문화내 간호현상의 정확성과 총체적인 실제 파악, 연구결과와 문화적 맥락내의 간호현장에의 실제

적인 적용을 보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기술적 연구방법은 기본이되는 연구방법이겠다. 더구나 간호현장에서 모든 간호수행은 간호사정에 기초하는데 기실 간호사정은 일련의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과 다를 바 없다. 즉,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간호인은 부지불식간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 연구를 해왔고 또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보고서화 되지 못하고 환자와의 일상적인 관계속에서 아직도 그리고 기록으로 보고되기까지는 언제까지나 진행과정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즉 간호현장 자체가 이미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의 자연적인 연구세팅이 되지만 연구문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 민감하게 되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 생활의 저변에 녹아있는 알려지지 않은 간호현상 발견과, 모호하고 불완전하고 갈등이되는 단편적인 지식을 명료화 하고, 개념과 가설도출, 이론개발을 이끌어 간호 지식을 발달 시키고 실무를 위한 간호이론 (theory for nursing) 과 간호이론 (theory of nursing) 정립에, 문화적 맥락내에서 기인된 측정도구의 개발, 한국적 간호의 본질 파악과 이론정립의 박차를 가하는 데에, 아울러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한국간호의 독특성을 지니고 세계 학자들과의 국제적인 학문 교류 활동을 가능케하는 데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연구방법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실증주의적 양적 방법과 상호보완적 관계속에서 간호현상의 총체적 이해와 대상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실생활에의 접근을 통해 독특성을 지닌 한국인에 맞는 효율적인 질적 간호 (quality of care) 증대 전략 확립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방법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Atwood, J. R. (1984). Advancing nursing science : Quantitative approaches. Communicating Nursing Research, 17, 9-15.
- Benner, P. (1984). From novice to expert : Excellence in power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Menlo Park, CA : Addison-Wesley.
- Benner, P. (1985). Quality of life :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exploration, prediction and understanding in nursing sci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1-14.
- Benoliel, J. Q. (1984). Advancing Nursing Science : Qualitative Approaches. Communicating Nursing Research, 17, 1-8.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rink, P. J., & Wood, M. J. (1988). Basic steps in planning nursing research : From question to proposal (3rd. ed.). Boston, MA : Jones and Barlett.
- Brink, P. J. (1989). Issues in reliability and validity. In J. M. Morse (E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151-168). MD : An Aspen Publication.
- Chenitz, W. C., & Swanson, J. M. (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Menlo Park, CA : Addison-Wesley.
- Cull-Wilby, B. L., & Pepin, J. I. (1987). Towards a coexistence of paradigms in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2, 515-521.
- Denzin, N. K. (1978b). Sociological methods : A source book. New York : McGraw-Hill.
- Devault, M. L. (1990). Talking and listening from women's stand point : Feminist strategies for interviewing and analysis. Social Problems, 37 (1), 96-113.
- Donaldson, S. K., & Crowley, D. M. (1978). The discipline of nursing. Nursing Outlook, 26, 113-120.
- Duffy, M. E. (1985). Designing nursing research : The quantitative debat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0, 225-232.
- Duffy, M. E. (1986). Qualitative research : An approach whose time has come. Nursing & Health Care, 7, 237-239.
- Emerson, R. M. (1983). Contemporary Field Research. Prospect Heights, IL : Waveland.
- Fetterman, D. M. (1989). Ethnography : Step by Step. Newbury Park, CA : Sage.
- Field, P. A., & Morse, J. M. (1985). Nursing research :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London : Croom Helm.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Boston,

-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 Aldine.
- Glittenburg, J. (1981). An ethnographic approach to the problem of health assessment and program planing : Project genesis. In P. Morley (Ed.), Proceedings of the sixth national transcultural nursing conference. Salt Lake City, UT : University of Utah.
- Goodenough, W. H. (1961). Comment on cultural evolution. Daedalus, 90, 521–528.
- Gortner, S. R., & Schultz, P. R. (1988). Approaches to Nursing science methods. Image :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 22–24.
- Gumperz, J. (1981). Conversational inference and classroom learning. In J. L. Green & C. Wallat (Eds.), Ethnography and language in educational setting. Norwood, NJ : Ablex.
- Hammersley, M., & Atkinson, P. (1989). Ethnography : Principles in practice. New York : Routledge.
- Hammersley, M., & Atkinson, P. (1983). Ethnography : Principles in practice. London : Tavistock.
- Harre, R. (1981). The positivist–empiricist approach and it alternative. In P. Reason & J. Rowan (Eds.), Human inquiry : A source book of new paradigm research (pp. 3–17). New York : John Wiley.
- Harris, M.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New York : Thomas Y. Crowell Company.
- Hartsock, N. M. (1981). The feminist stand point : Developing the ground for a specifically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In S. Harding & M. Hintikka (Ed.), In discovering reality : Feminist perspectives on epistemology, metaphysics,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pp. 283–310).
- Huber, J. (1973). Symbolic interaction as a pragmatic perspective : the bias of emergent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274–284.
- Keesing, R. (1976). Cultural anthropology : A contemporary perspective. Comme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Knaack, P. (1984). Phenomenological research.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6, 107–114.
- Leininger, M. M. (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 LeVine, R. (1970). Research design in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R. Narroll & R. Conen (Ed.),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 The Natural Histor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Sage.
- Lipson, J. (1989). The use of self in ethnographic research. In J. M. Morse (E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 A contemporary dialogue (pp. 61–75). Rockville, MD : Aspen.
- Marshall, C., & Rossman, G.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 Sage.
- OaKley, A. (1981). Interviewing women : A contradiction in terms. In H. Roberts (Ed.), In doing feminist research.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Omery, A. (1983). Phenomenology : A method of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5), 49–63.
- Phillips, J. R. (1988). Research blenders. Nursing Science Quarterly, 1, 4–5.
- Parse, R., Coyne, A., & Smith, M. (1985). Nursing Research : Qualitative methods. Bowie, MD : Brady Communication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 Sage.
- Ragucci, A. T. (1972). The ethnographic approach and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21, 485–490.
- Reichardt, C. S., & Cook, T. D. (1979). Beyond qualitative versus quantitative methods. In T. D. Cook & C. S. Reichardt (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Re-

- search.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Robertson, M. H., & Boyle, J. S. (1984). Ethnography : Contributions to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9, 45-49.
- Rogoff, B. (1978). Spot observation : An introduction and examination. Institute for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2(2), 21-26.
- Sanday, P. R. (1986). The ethnographic paradigms. In J. Van Maanen (Ed.), Qualitative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 Sage.
-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 27-37.
- Schatzman, L. & Strauss, A. (1973). Field research : Strategies for a natural sociolog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Smith, D. E. (1987). The everyday world as problematic : A feminist sociology. Boston, MA :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Spradley, J. P., & McCurdy, D. W. (1972). The cultural experiences : Ethnography in complex society. Palo Alto, CA :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Spradley, J. P. (1979). Ethnographic interviews. Toronto, Canada : Holt, Reinhart & Winston.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 Sage.
- Swanson-Kauffman, K. M. (1986). A Postnatal qualitative methodology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58-69.
- Van Maanen, J. (1983). Reclaiming qualitative method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In J. Van Maanen (Ed.), Qualitative methodology (pp. 9-18). Beverly Hills, CA : Sage.
- Walker, R. (1981). On the uses of fiction in educational research. In D. Smertherham (Ed.), Practicing evaluation. Driffield : Nafferton.
- Watson, J. (1985). A theory of nursing. Norwalk, CT : Appleton-Century-Croft.

- Abstract -

Qualitative Methodology and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Yoo, Eun Kwang*

This paper presents methodological paradigms : quantitative positivistic (logical empiricism) as the received tradition in the scientific inquiry and qualitative naturalistic (post-positivism or naturalism) as a new paradigm in the Kuhnian sense. Various kind of qualitative methods under the umbrella term, qualitative inquiry, were briefly introduced.

Details on the definition, epistemology, naming of subject, field techniqu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ethnographic interview) of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as an adequate method for studying on the unique nursing phenomena in Korean culture were done. Besides, the concept of triangulation, issues on the methodological paradigm, a criteria for rigor of qualitative naturalistic inquiry were mentioned.

* Nursing Department,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